

KMI 동향분석

VOL.55
2017 NOVEMBER

발간년월 2017년 11월(통권 제55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
(jwhong@kmi.re.kr/051-797-4721)

윤인주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mouthpiece@kmi.re.kr/051-797-4724)

최일선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이정아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 추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7년 10월 해양수산부는 해양 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 육성 협력 지자체로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 등 지자체 4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4개 지역은 지역별 해양치유자원 효능검증과 함께 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치유관광산업은 삶의 질 향상과 경험주의 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웰니스, 휴식, 휴양을 테마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웰니스 시장의 경제적 가치는 약 4,000조 원으로 세계 경제 생산의 5.1%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웰니스 관광산업은 약 638조 원 규모로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 관광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3.4%와 비교할 때 2배에 가깝다.

세계 해양치유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활용하며 사회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내 해양요법시설은 83개 이상이며 해양요법 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France Thalasso)'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치유휴양지인 쿼오르트를 중심으로 해양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350개 이상의 쿼오르트가 운영 중이며 이 중 해양치유 및 해수욕 쿼오르트는 32개소이다. 일본은 1990년대 오키나와현에서 프랑스식 해양요법시설을 도입하면서 해양치유를 시작하였다. 일본의 해양치유 산업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클러스터 개발로 이를 생산·판매·연구하는 종합단지를 갖추고 있으며 심층수, 해니, 해조, 광선, 에어로졸 등을 이용한 해양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내 치유관광은 산림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산림치유부문은 숲 자원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가 치유사업을 발굴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림치유원 등 산림자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또한 1990년대부터 산림치유, 산림휴양, 산림복지를 위한 법령과 제도가 추진, 정비되어 왔으며 최근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해양관광 패러다임 전환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회로 해양치유산업을 활용해야 한다. 이번 4곳의 해양치유 연구협력 지역 선정은 지역의 고유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해양관광 모델을 발굴하여 관광경쟁력 개선과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양치유가 해양복지서비스로도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해양치유 거점 육성, 체계적인 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의 치유효과에 대한 R&D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해양치유지도사)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센터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해양치유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해양치유산업 본격화 전망

■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연구협력 지자체 4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는 2017년 10월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지자체로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을 최종 선정하여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천명함
- 선정된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향후 2년간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기초 연구를 통하여 해양치유 산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임
-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치유자원인 해양기후, 해수, 해니, 해염, 해사, 해양생물자원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해외에서는 주로 해양요법(Thalassotherapy: 탈라 소테라피)의 형태로 육성되고 있음

그림 1. 해양치유 연구협력 지자체 선정 지역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 해양수산부는 선정된 4개의 지자체와 함께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연안지역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표 1. 해양치유 연구협력 선정 지자체 주요 현황

선정지역	대표 해양치유자원	후보 대상지	주요경과
경남 고성군	굴	하일면 자란만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해양치유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발굴 및 육성 · 해양항노화 및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대학과 업무 협약 체결
경북 울진군	염지하수	평해읍 월송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치유센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치유자원개발 해외 선진국 벤치 마킹 · 경상북도 해양치유센터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
전남 완도군	해조류	신지면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조류 등 해양생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진행 및 해조류 건강바이오 특구 지정 · 해양치유산업 전담조직 신설 및 마스터플랜 수립 · 독일 노르더나이스와 해양치유산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2017년 4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국제 세미나 개최
충남 태안군	천일염	남면 달산포 체육공원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여가와 치유의 도시' 이미지 부각 · 해외 해양치유 우수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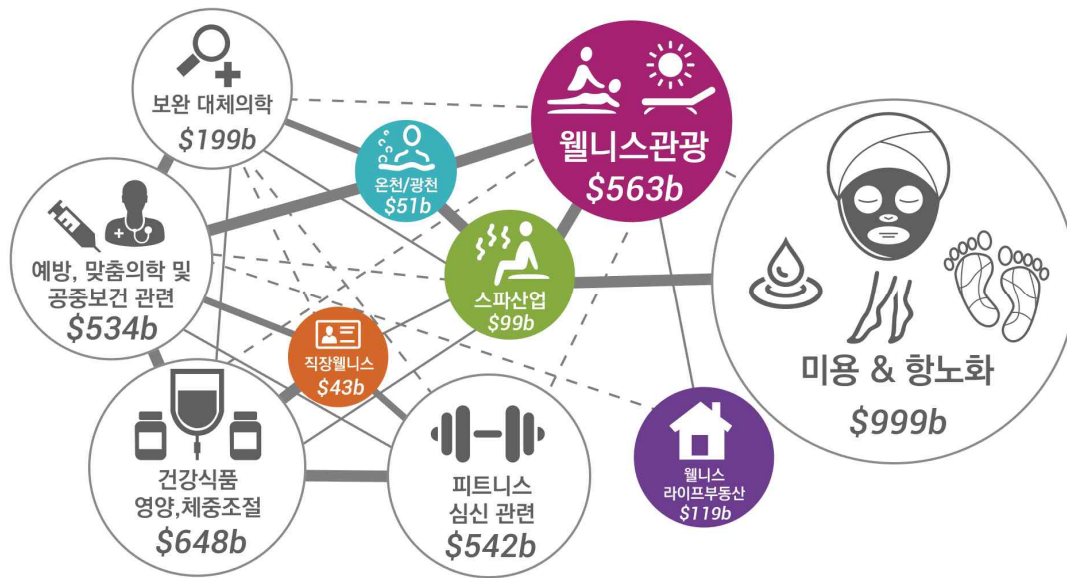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세계 관광산업의 트렌드는 웰니스와 휴식

■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 산업의 경제적 가치 꾸준히 증가

- 경험주의 관광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위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세계 관광산업의 트렌드는 웰니스, 휴식, 치유 등의 형태로 이동하고 있음
- 세계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가 발표한 2015년 기준 웰니스 시장의 경제적 가치는 3.7조 달러(한화 약 4,000조 원)로 전 세계 경제 생산의 5.1%를 차지하는 중요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세계 웰니스 시장의 성장률은 10.6%로 동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6% 하락한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음
- 세계 웰니스 산업의 규모 및 유형을 살펴보면 미용 및 항노화 관련 산업의 규모가 가장 크며 건강 식품·영양·체중조절, 피트니스 및 심신 관련 산업, 웰니스 관광산업 등이 있음
- 웰니스 관광은 5,630억 달러(한화 약 638조 원) 규모로 세계 웰니스 산업 분야 중 3번째로 큼

그림 2. 세계 웰니스 산업 규모



자료: 세계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 2017』, 2017.1, p. 3.

-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웰니스 관광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6.8%로 이는 동 기간 일반 관광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인 3.4%의 2배에 달함
- 웰니스 관광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7.5%의 성장세로 약 8,080억 달러(한화 약 915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북아메리카와 유럽 시장이 전체 시장의 72.6%를 차지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2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웰니스 관광시장이 크게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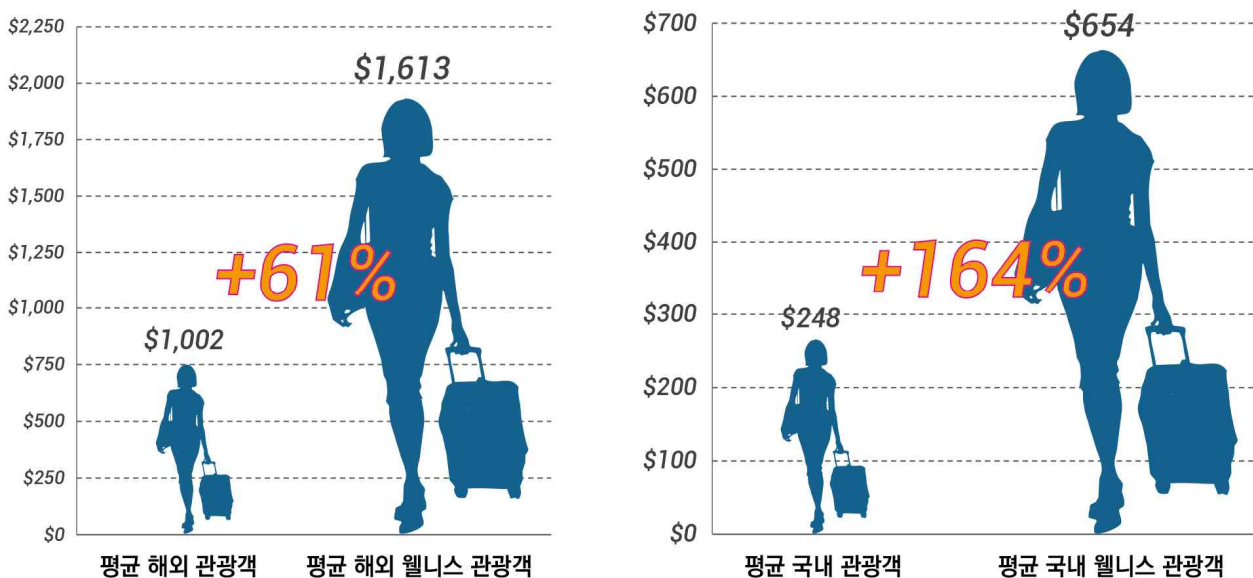
표 2. 지역별 웰니스 관광시장 규모

지역	여행 빈도수 (단위: 백만 회)			지출 (단위: 십억 달러)		
	2013	2015	증감률	2013	2015	증감률
북아메리카	171.7	186.5	8.6%	195.5	215.7	10.3%
유럽	216.2	249.9	15.6%	178.1	193.4	8.6%
아시아-태평양	151.9	193.9	27.6%	84.1	111.2	32.2%
라틴아메리카-캐리비언	35.5	46.8	31.8%	25.9	30.4	17.4%
중동-북아프리카	7.0	8.5	21.4%	7.2	8.3	15.3%
아프리카	4.2	5.4	28.6%	3.2	4.2	31.2%
총 웰니스 관광 시장	586.5	691.0	17.8%	494.1	563.2	14.0%

자료: 세계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 2017』, 2017.1, p. 21.

- 한편, 일반 관광객과 웰니스 관광객의 평균 지출규모를 비교해보면 해외 관광객은 웰니스 관광객이 일반 관광객보다 약 61% 이상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관광은 웰니스 관광객 1인당 지출규모가 일반적인 관광의 형태보다 약 164%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웰니스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보이며 평균 여행 기간 역시 긴 것으로 나타나 여행 소비규모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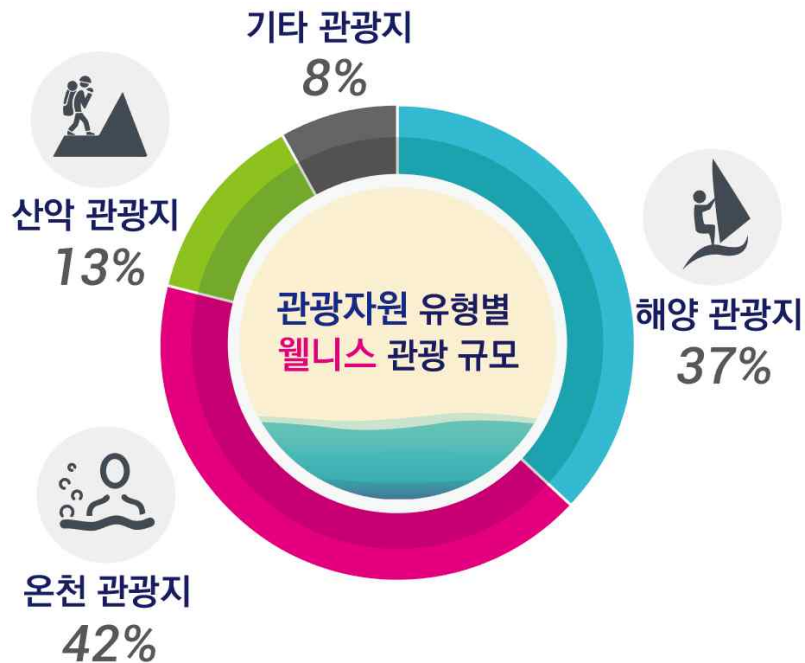
그림 3. 일반 관광객과 웰니스 관광객 평균 지출규모 비교



자료: 세계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 2017』, 2017.1, p.24

- 한편 웰니스 관광은 관광자원 유형별로 해양 관광지, 산악 관광지, 온천 관광지, 기타 관광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양 관광지가 37%를 차지함
- 전체 웰니스 관광시장의 규모가 5,630억 달러임을 감안해 볼 때 해양과 관련한 웰니스 관광 시장은 약 2,083억 달러(한화 약 234조 1,500억 원) 규모로 추정됨

그림 4. 관광자원 유형별 웰니스 관광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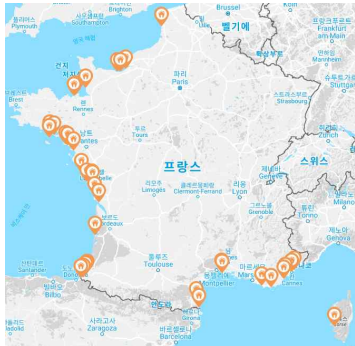
자료: Le Medecine Thermale, 2012

유럽은 질병예방·치료, 일본은 관광·자원개발로 접근

■ 프랑스, 해양요법을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이용하고 사회보험으로 지원

- 해수의 치유 속성과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루이-유진 바고(Louis-Eugene Bagot) 박사가 1899년에 최초의 해양요법시설인 해양연구소를 로스코프(Roscoff)에 설립함
 - 이곳에서 사이클 선수 루이종 보베(Louison Bobet)가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마비를 완치함
 - 보베는 바닷가에 건강·레저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현대식 해양요법시설을 1964년에 퀴베롱(Quiberon)에 설립함
- 현재 해양요법시설은 83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 중 해양요법 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France Thalasso)’의 인증을 받은 시설은 38개소임
 - 자연보호 및 우수한 경관, 천연해수 사용(24시간 내), 의학적 지도하의 치료, 물리치료·수치료·영양사 등 전문가팀의 구성, 철저한 위생과 보안, 규격화된 시스템 등을 기준으로 인증함
-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 아키텐(Aquitaine), 라 볼(La Baule) 지역 등이 해양리조트 및 대중관광지로 개발되어 있고 사회보험이 적용되어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이용됨

그림 5. '프랑스 탈라소' 인증 시설의 분포 현황 및 주요 지역 전경



자료: (좌) '프랑스 탈라소' 인증 시설 분포, <http://www.france-thalasso.com/centres/>;

(가운데) 로스코프, <http://www.thalasso.com/thalasso/les-destinations/roscoff/#/q=1892/d=3/>;

(우) 퀴베롱, <http://www.morbihan-tourism.co.uk/home/discover/morbihan/the-main-destinations/quiberon>
2017. 10. 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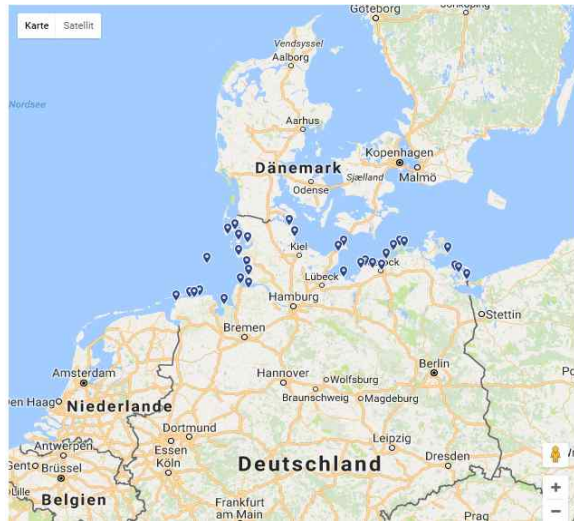
■ 독일, 치유히양지인 쿠어오르트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보험에서 해양치유 지원

- 법적 근거는 '사회법 제5권(Sozialgesetzbuch: SGB V)', '예방법(Präventionsgesetz)' 등 연방법에 있고, 각 주의 법령이 350개 이상의 쿠어오르트(Kurort: 치유히양지)를 인증·관리함
- 쿠어오르트의 종류는 광천·온천, 크나이프, 기후, 라돈 등의 유형으로 구분됨
- 발트해 또는 북해와 접해 있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니더작센 주 등 3개 정부의 쿠어오르트 법령 세부유형 중 '해양치유욕(Seeheilbad)'과 '해수욕(Seebad)'을 구분하여 명시함
- 해양치유욕 쿠어오르트와 해수욕 쿠어오르트 인증 시 공통 사항은 ① 해양치유센터가 해안으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하고, ② 수질의 보존과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③ 해변 산책로, 공원, 해변 경관 감상길, 놀이·스포츠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함
- 해수욕 쿠어오르트는 그 외 ① 기후 특성과 대기의 질이 모니터링되어 치유·휴양을 돕고 ② 진찰과 처방이 가능한 개인 의사 진료실(Arztpraxis)¹⁾이 있어야 함
- 해양치유욕 쿠어오르트는 그 외 ① 과학적·경험적으로 인정·입증된 치료 환경과 대기의 질 ② 의사의 입욕지도 ③ 영양사의 식이요법 ④ 휴양 목적의 시설 ⑤ 정보·안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1892년에 설립된 '독일스파협회(Deutscher Heilbäderverband: DHV)²⁾'는 독일 스파 및 쿠어오르트 253개소, 입욕 및 기후학 관련 회원 1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회에 등록된 해양치유욕 및 해수욕 쿠어오르트는 32개소임

1) 개인 의사 진료실에서 치료 의뢰서를 받아야 수술, 전문적인 검사, 치료가 가능한 병원(Krankenhaus, Klinik)에 갈 수 있음

2) 광천이나 온천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서 스파라고 번역함. 스파는 물을 이용한 건강증진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함. 광천(鑛泉: mineral spring)은 지하수로서 다량의 고형물이나 기체를 함유하고 있으며 보통 25℃ 이상인 것을 온천(溫泉: hot spring)이라고 함. 독일스파협회는 광천, 온천뿐 아니라 해수 이용까지 포괄하는 연합회임.

그림 6. 독일 해양치유 쿠어오르트 분포 현황 및 주요 지역 전경



자료: (좌) 독일스파협회(DHV), <http://www.deutscher-heilbaederverband.de/die-kur/ihr-kurort/>; (우) 노더나이섬 바데 하우스 해변 전경, <https://www.norderney.de/strand-meer/badezeiten.html>, 2017. 10. 26. 검색

■ 일본, 헬스투어리즘 인증과 해양심층수 활용 등으로 해양치유관광 운영

- 일본은 1990년대 오키나와현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프랑스식 해양요법시설에 주목했고 최근에는 고급리조트와 지역주민시설로 양분되어 일본 전역에 26개소 이상이 운영 중임
- 해양치유 법제도는 없지만 온천, 해수를 이용해 관광을 진흥하고 안정성·유효성·가치창조성을 기준으로 한 헬스투어리즘(Health Tourism)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함
- 일본 해양치유의 또 다른 축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클러스터 개발임
 - 무로토 시(市)에는 ‘해양심층수연구소’(1989년 개소)를 비롯해 해양심층수를 취수·공급하는 ‘아쿠아 팜(Muroto Deep Sea Water Aqua Farm)’(2000년 건립), 지역 주민·고령자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씨레스트 무로토(Searest Muroto)’(2006년 조성), 민간 개발 해양요법시설인 ‘우토코 테라피센터(Utoco Deep Sea Therapy Center & Hotel)’ 등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됨
 - 아이즈 시가 위치한 스루가만의 해양심층수는 일본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취수되며 해수의 침투성과 성분이 뛰어나 생산·판매·연구 종합단지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의 ‘야쿠아스 아이즈’가 이를 데워 사용하고 해니, 해조, 광선, 에어로졸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그림 7. 일본 해양요법시설의 분포 현황 및 주요 시설 전경







자료: (좌) 우토코 테라피센터, <http://cielrouge.com/en/urban-projects/utoco-hotel-and-seawater-therapy-center>;
(우) 아쿠아스 야이즈, <http://www.geocities.jp/books10002000/sida/yaizu/aqas.html>, 2017. 10. 26. 검색

■ 다양한 형태의 해양치유시설 중 현실적으로 국내 적용 가능 유형은 세 가지

- 프랑스·독일은 해양치유를 활용한 역사가 오래되고 보완대체요법으로서 인정하며 장기휴가 문화를 통해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자립성을 높이는 ‘개호(介護)예방’ 차원의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양치유시설을 활용하고 있음
- 국내의 역사·의학·문화적 수용태세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주민 건강증진형 시설을 개발하고 민간자본 유치에 통해 리조트형이나 레저복합타운형 개발을 모색해볼 수 있음

그림 8. 해양치유시설 개발 유형 및 일본 내 사례

 <p>프랑스식 리조트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키나와 부세나 테라스 리조트 · 치바현 테르무마란 퍼시픽 	 <p>독일식 치료목적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내 사례 없음 - 치료 목적을 가진 시설은 의료진을 보유해야 함 - 유사 사례로 고령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토야마온천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운동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음 	 <p>일본식 건강증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라소아마미 -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 - 아마미시 조사 결과 시설 이용자의 의료비가 40~45% 감소함 	 <p>레저복합 타운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구나 텐보스 - 해양기후와 해수를 이용한 치유 시설의 입지로는 열악함 - 제대로 된 탈라소테라피 운영을 위해서는 인근의 깨끗한 해수를 끌어오는 등 별도 노력이 필요함
---	--	---	--

자료: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국내 치유관광은 산림을 중심으로 발전

■ 중앙 부처 및 지자체 주도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 부처와 각 지자체가 국립공원, 탐방로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사업을 발굴·운영하고 있음
- 환경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총 면적 6,726km²)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의 숲, 일반인 및 환자를 위한 건강 증진 캠프, 산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산림청은 휴양림(166개소), 산림욕장(194개소), 치유의 숲(11개소), 산림치유원(1개소) 등 산림자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 관광 25선을 선정해 상품화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적 협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관광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 각 지자체도 지역의 고유한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산림욕장, 탐방로, 명상의 집 등 다양한 치유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산림분야는 90년대부터 치유관광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추진

- 정부 부처가 추진 중인 다양한 치유관광 정책 중에서도 산림치유 활성화 정책이 199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산림청은 질병 치료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건강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 활동으로 산림치유의 영역을 정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산림치유 인자로 피톤치드³⁾를 홍보하고 있음
- 산림치유 체험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0%씩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6만 명에서 2016년 118만 명으로 약 7.4배 증가했으며 산림휴양, 산림교육, 수목원 등을 포함한 전체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은 3,472만 명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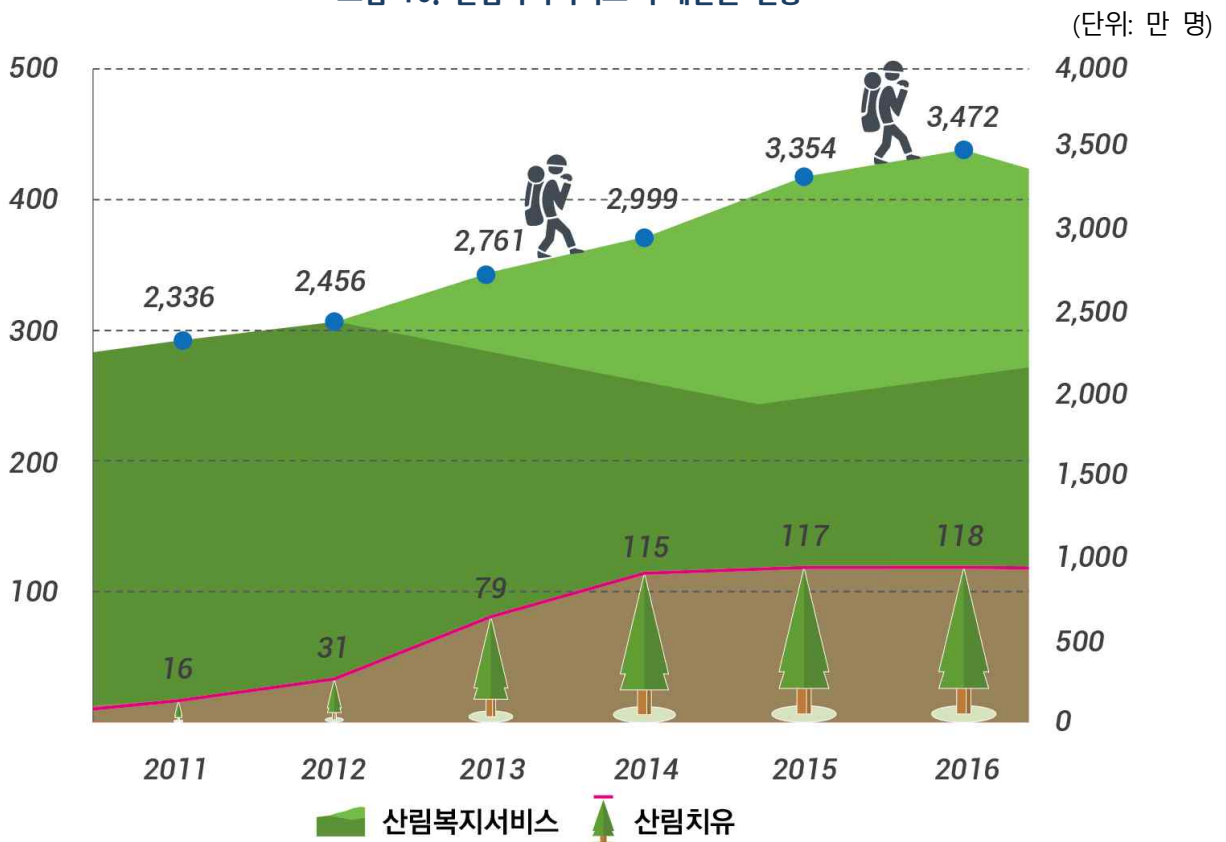
3)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과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이며, 식물의 'phyton'과 살해자의 'Cide'의 합성어임. 산림 내 공기에 존재하는 휘발성의 피톤치드는 인간의 후각을 자극하여 마음의 안정과 쾌적감을 주며,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함

그림 9. 산림치유 인자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http://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Id=40>, 2017. 10. 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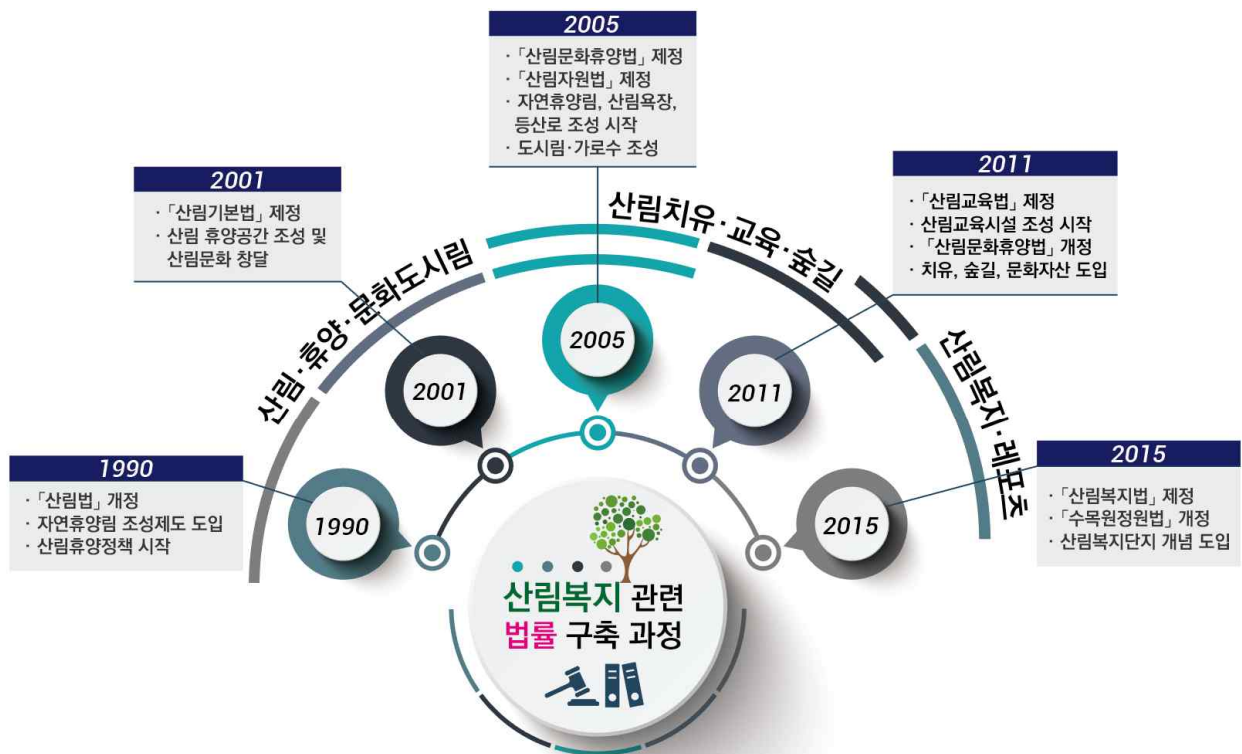
그림 10.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현황



자료: 산림청, 산림복지진흥계획(안)(2018~2022), 2017.9., p.10 재구성

- 국내 산림휴양정책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1년 「산림기본법」, 200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복지법)」이 마련되면서 산림 휴양공간 조성,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 산림복지 개념 도입 등으로 확장됨
- 산림 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법」과 「산림기본법」을 통해 「산림휴양법」으로 공간 및 시설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법」을 통해 산림치유·복지 분야를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
- 1988년 유명산과 대관령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꾸준히 산림치유 공간을 확보하여 2016년 현재 자연휴양림(165개소), 산림욕장(194개소), 치유의 숲(11개소), 숲길(14,080km) 등을 확충함
-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산림치유지도사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전국 13개 지정기관에서 667명을 양성함
- 숲태교, 유아숲체험, 청소년 산림교육, 수목장, 학교폭력이나 인터넷·알콜 중독 등 이용계층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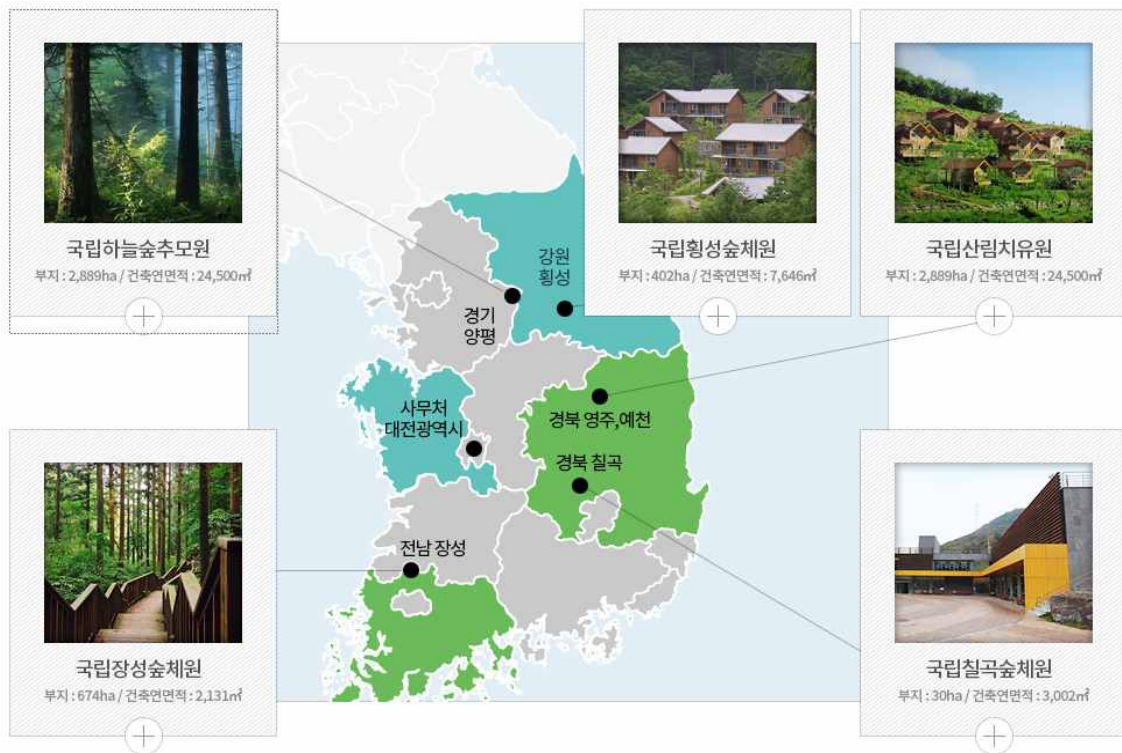
그림 11. 산림복지 관련 법률 구축 과정



자료: 산림청, 산림복지진흥계획(안)(2018~2022), 2017.9., p.6.

- 산림복지단지와 관련 시설의 조성 및 운영,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을 설립·운영(산림복지법 제49조)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홍보 확산을 위해 산림치유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체험수기 공모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개최함

그림 1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시설 현황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http://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lId=51#2017.10.23>. 검색

■ 산림치유 정책화 사례 검토를 통한 해양치유관광 정책 도입 방향 체계화

- 산림치유 분야는 1990년대부터 산림치유 개념 도입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추진함
- 산림치유 및 휴양을 위한 공간과 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산림치유 전담 기관 설립, 산림치유업 신설 등 산림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형성 과정은 해양치유 부문에도 원용할 수 있음
- 앞서 추진되었던 산림치유 정책화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양치유 정책영역 설정, 해양치유 관광 육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 상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

해양치유와 해양관광의 연계발전 토대 구축 필요

■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관광 패러다임 전환 및 대국민 복지서비스 제공

- 국내 해양관광은 해수욕, 해변 경관감상 및 휴식, 수산물 시식 등 당일 혹은 경유형 관광활동을 중심으로 관광시장이 형성됨
- 하계 휴가기간 집중 이용에 따른 과밀, 혼잡으로 방문객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유사한 관광상품 운영으로 지역차별성도 확보되지 못함
-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해양관광 사업 모델 발굴을 통하여 해양관광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해양관광의 계절적 집중 완화 및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
- 관광휴양객 외에 어업인, 지역주민, 노년층, 은퇴자,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양자원과 해양공간을 이용한 대국민 해양복지서비스 제공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음

■ 해양치유관광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해양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자원의 치유효과에 대한 R&D 진행,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인증과 홍보, 대국민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해양치유지도사)을 위한 인력 양성 센터 건립 등 관련 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이와 함께 전국 4개 시범지역 확대를 통한 연안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의 발굴과 치유거점 지정, 지속적인 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해양치유관광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해양치유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야 함
- 국내 해양관광 부문은 자원 발굴, 공간 정비, 민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활성화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된 바, 해양관광과 해양치유를 연계한 법적 근거 확보도 필요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들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파제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자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앞날을,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구분	제목	발행일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첨병!, 로보틱·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가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URL : <http://www.kmi.re.kr/>